

현대의 핵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 한반도를 중심으로 -

박 사무엘(신대원 3)

1장/서론	2장/핵무기의국제정세
3장/한반도의 핵문	4장/핵전쟁에 대한 고찰
5장/핵전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접근과 한국교회의 대응	
6장/결론	※참고문헌
부록/창세기 9:1-17 주석(하나님의 보존 언약)	

1. 서론

1. 문제 제기

국가안전에 대한 현대의 일반적인 추세는 물리학의 첨단 분야 중 하나인 핵 융합 또는 분열을 이용한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대 수단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의 위력적인 파괴력을 인식하고 앞다투어 핵무기의 보유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은 단순한 자국 보호의 수단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로 등장하고 있다.

현대 인류는 생존의 장인 지구를 폐허화 시킬 수 있는 핵무기의 위협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 과학의 진보, 인류의 유토피아를 부르짖지만 어느 순간에 파멸을 가져올 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한반도에도 핵전쟁의 소용돌이가 다가왔었고, 우리의 가까이에 검은 마수가 뻗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그러나, 세계는 마치 폭탄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도 태연히 안전판을 쥐고 있다. 옆에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무기를 손에 쥐고서는 신기한 듯이, 겁없이 쳐다보는 철부지 같다.

지구를 30번 이상 파괴시킬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인류는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한반도에도 이미 수 회의 핵전쟁 시나리오가 미국에 의해 짜여졌었고, 투하 직전까지 이른 적도 있었다.¹⁾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진실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은폐된 함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과연 핵무기는 자국을 보호하는 최첨단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현대의 핵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류의 생존을 노리는 강도 앞에서 아무 대처를 못하는 무력한 자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논고는 현대의 핵무기가 갖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바른 시각을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은 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교회는 현대의 핵문제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특별히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국교회는 현금의 한반도 핵 현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 세계가 완전히 파멸될 위기 속에 살면서도 무책임하게 지낼 수는 없는 것이다. 성경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교회는 핵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핵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기본 단위이다. 핵에너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세계에 대한 위대한 발견이며, 인류의 평화와 자연의 보존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원이다. 그러나, 핵에너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화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반기독교적·비윤리적인 행위이다. 핵전쟁은 하나님이 생명있는 모든 생물과 맺은 보존의 언약에 대항하는 것이다. 또한, 핵을 보유하여 자국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핵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고, 기존의 핵무기는 폐기되어야 하며, 핵에너지는 반드시 평화적인 사용만이 인정될 수 있다. 그 외의 어떤 수단으로도 핵무기의 보유 및 사용은 용납 되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광대함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핵을 통해 무기화하여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확대하려 한다. 한반도의 핵개발 역시 남한이나 북한이 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의도 속에는 핵무기를 평화와 자국 안보의 절대 수단으로 이상화하는 잠재적 시도가 숨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세계의 핵 체제를 기독교 윤리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느낀다.

1) 이영희, 임재경 편, <반핵 : 핵무기의 구조와 한반도>, p.174-212., 조재길의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p.90-91., 이영희의 <새는 죄우의 날개로 난다>, 21-23쪽을 참조하라.

특별히 본 논문에서는 현대 핵무기의 안보체제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과 평화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3. 기존의 연구 검토

현재 한반도의 핵문제에 관해 다룬 국내 서적들이 몇 권 출간되었다. 최근에 국내에서 나온 한반도 핵무기와 관련된 서적은 하영선의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조재길의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김태우의 <한국 핵은 왜 안되는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권도서들은 핵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조망이 아니라, 핵확산의 세계 질서나,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한 정치적 분석과 민족적 대안을 제시할 뿐이다.

반면,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한 기독교계의 몇몇 글들이 정기간행물들을 통해 제시되었다. 손규태의 “북한의 핵무장과 그리스도교회”, 이기택, “한반도의 평화와 군축”, 노정선의 “핵주권과 민족주체성” 등의 글들이 1994년도에 한반도의 핵문제와 관련되어 지상에 발표되었으나, 현상적이고 단편적이며, 핵을 조망하는 성경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밖에 외국서적들은 현대 핵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인 시각을 평화론이나 정당전쟁론, 핵 평화론, 핵 억지론적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주로 서방의 상황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기존의 연구들은 핵문제를 기독교 윤리적으로, 성경에 바탕을 두고 특별히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핵위기 상황에 당면한 한반도의 핵문제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라보며, 핵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별히 기존의 기독교 윤리학계에서 연구한 핵문제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핵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성경적 입장에서 평가할 것이다. 비록 부족하나마 이제까지 제한적으로 접근했던 국내의 글들의 한계를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그리고 기독교 윤리적으로 한반도의 핵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4. 연구의 방법

위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본 논문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국제 정세적 접근 방법과 기독교 윤리적 접근 방법으로 살필 것이다. 먼저, 현대의 핵문제에 대한 분석은 과학적 발전, 국제 정치적 정세, 민족적인 시각 속에서 국제 정세적 접근을 통해 다룰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핵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과 대안을 기독교 윤리적 접근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이 기독교 윤리적 고찰이므로, 국제정세적 접근은 심도 깊지 다루고 있지 않다. 핵무기의 발전과 세계적인 핵문제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군사학적, 사회적 고찰은 단지 한반도의 핵문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룰 뿐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반도의 핵문제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핵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접근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핵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시각은 언약과 평화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국제 정세적 접근으로 II장에서 현대의 핵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III장에서는 세계 핵의 실상 속에서 최근 일어난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려 한다. 이어 좀더 깊이 있는 기독교 윤리적 논의를 위해 IV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제 이론을 다루며, 핵전쟁에 대한 현대의 제 전략들을 고찰해 본다. V장에서는 핵전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접근을 시도하고, 한국교회의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핵무기의 국제 정세

1. 핵무기의 정세

현대 물리학의 발달과 함께 국제 사회에 큰 관심사로 등장한 분야가 핵반응에 관한 연구이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원료로 원자핵과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엄청난 에너지는 분명 인간이 발견하고 이용해야 할 금세기 최대의 에너지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엄청난 에너지가 인류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량으로 살상하고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핵무기로 둔갑하였다.

세계대백과사전에는 핵무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핵무기는 “핵분열이나 핵융합 등의 원자핵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발생케 하여, 그 에너지를 대량 파괴나 대량 살상에 사용하는 무기의 총칭” 이다. 이에는 핵무기의 운반 수단인 미사일과 핵탄두가 포함되며, 핵반응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원자력 잠수함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핵무기의 종류에는 크게 핵분열반응을 이용한 원자폭탄과 핵융합반응을 이용한 수소폭탄이 있다. 이외에도 이를 응용한 중성자 폭탄, 순융합폭

2) 학원사, 세계대백과사전, 제31권(서울:학원출판공사, 1993.), p.509.

탄, 초플루토늄 폭탄 등이 개발 중에 있다.³⁾ 또한, 핵무기는 운반수단의 사정 거리에 의해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로 나뉜다. 전략 핵무기는 주로 대륙간의 장거리 등에 이용되는 무기이고, 전술 핵무기는 주로 국지적인 전쟁에서 사용된다.

2. 핵무기 개발의 역사

핵무기가 현대 물리학의 공헌을 입은 바가 큼을 핵 개발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원래는 순수하게 학문적인 연구로 시작된 핵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 의해 핵무기로 활용되어 인류의 대량 파괴, 살상 무기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1938년 엔리코 페르미, 오토 한, 프리츠 슈트라스만 등의 물리학자들에 의해 천연으로 가장 무거운 원소인 ^{238}U 가 ^{138}Ba 과 ^{94}Kr 로 나누어 지는 핵분열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 핵분열은 매우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우라늄의 원자핵 1개가 분열했을 때에 방출하는 에너지는 약 200MeV로써 탄소가 연소할 때에 방출하는 에너지 4eV의 5,000만 배이다.⁴⁾

이렇게 1930년대 말에 핵분열 원리가 발견되어 엄청난 에너지의 이용 가능성이 예견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자 주요 교전국에서는 이를 무기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원자폭탄을 제조할 것을 우려한 미국은 1942년 8월 '맨하튼(Manhattan) 계획'이라는 암호명 아래 은밀히 원자폭탄 제조 계획에 착수하였다. 3년간에 20억 달러를 투자한 결과 1945년 7월 최초로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하였고, 이후 8월 6일과 9일 일본에 실제적으로 사용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3. 핵무기 보유의 실태

최초로 미국이 핵분열의 원리를 이용한 엄청난 에너지를 무기화한 이후

3) 핵무기는 반응 방식에 따라 원자폭탄, 강화원폭, 수소폭탄, 중성자탄, 순융합 폭탄, 초플루토늄 폭탄 등으로 나뉜다. 중성자 폭탄은 최초의 핵분열을 가능한 한 적게 하고 핵융합의 비율을 높임으로 순간적으로 대량의 중성자가 발생케 하는 핵폭탄으로, 파괴력이나 열효과를 최소화하고 인원 살상에 중심을 둔 무기이다. 반면, 순융합 폭탄은 분열반응에 의하지 않고 융합반응만을 이용한 핵폭탄이고, 초플루토늄 폭탄은 플루토늄보다 원자량이 많은 인공원소를 이용하여 초소형으로 큰 폭발력을 내는 핵폭탄이다. 자세한 것은 동아출판사, 세계대백과사전, 제30권, p.53-54.를 참고하라.

4) 학원사, 513.

세계 각국은 핵무기 보유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핵무기 보유가 전쟁위기의식에 의한 자국 보호책으로 강대국들에 시작되었었다. 특히, 미-소 두 극단으로 나뉘어 세력 경쟁을 하던 냉전시대에는 핵무기의 보유가 곧 생존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점차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남에 따라 이제는 핵무기가 자국의 이익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과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특히, 필요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함에 따라 전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는 화약고로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소련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1949년 8월 원자폭탄 실험, 1953년 8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였고, 61년에는 세계 최대의 파괴력(약 58Mt)을 지닌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였다. 영국도 52년 10월 원폭 실험, 57년 5월 수폭 실험에 성공하였고, 프랑스도 60년에 원폭, 68년에 수폭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외에도 중국은 64년과 67년에 원폭과 수폭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인도도 74년 지하 핵 실험을 마쳤다. 알려진 바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스라엘 등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핵무기의 증가에 따라 미국과 구 소련은 SALT I(제1차 전략무기 제한회담)을 통해 매일 2개의 핵폭탄을 생산하기로 합의하였고, SALT II에서는 매일 3개 반을 생산하기로 확대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하루에 3-6개, 연평균 천개 이상의 신형 핵폭탄을 제작하고 있다.⁵⁾ 현재의 핵무기 보유수에 대해 아태재단의 이사장인 김 대중씨는 “냉전 시대가 끝난 마당에 미국과 러시아가 45,000개,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이 1,200개의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⁶⁾

오늘날 핵무기의 보유량은 전세계를 30번 이상 파멸시키기에 충분한 용량이다. 이미 70년대를 전후하여 한 척의 미 핵 잠수함이 동시에 러시아의 160개 도시를 파괴시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⁷⁾ 또한, 70년대에 들어서는 핵무기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해 MIRV라는 복수탄두의 개발로 전략 핵 미사일을 크게 변화시켰다. 1983년에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MX미사일 시스템을 제안하여 ‘별들의 전쟁(Star Wars)’을 주창하였다. 그는 과학계에 소련 편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세력 균형을 깨뜨리는 파괴적인 대항책을 채택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전 국토에 대한 철통같은 핵 탄

5) Bob Goudzwaard, 현대 우상 이데올로기, 김재영역(서울:IVP,1987), 66.

6) 국제신문, 1994. 4. 8.

7) 하웃즈바르트, 73.

두 미사일 방어책을 구축하기에 모든 노력과 자원을 동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8)

4. 핵무기 파괴의 위력

핵무기의 파괴력과 열효과는 재래식 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다른 폭탄과는 달리 방사선을 방출하여 다량의 살상·파괴 효과를 가져온다. 재래식 무기는 그 파괴력이나 살상 정도에 있어 제한적이며, 전인류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대의 핵무기는 무제한적이며, 그 희생자도 무분별적이고 파괴에 있어 통제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자국 보호와 국제적 지위 확보의 수단인 핵무기가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 파괴 그 자체로 변질된 것 뿐이다. 현대 세계에서의 핵무기 사용은 인류의 파멸로 나아갈 뿐이다.

핵무기에 의한 파괴는 폭풍, 열선, 방사선의 3대 효과가 복합해서 나타난다. 핵무기가 폭발하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어 섭씨 수십 만도 이상의 고온을 발생하며, 방출 에너지의 대부분은 X선이 되면서 원거리까지 살상 효과를 미친다. 특히 다량의 X선을 흡수한 공기는 고온에 의한 불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며, 이 불덩어리에서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의 광선이 방출되어 주위 일대에 소이(燒夷)효과를 미치게 된다. 또한, 공기는 열에 의해 급격히 팽창하므로 폭풍과 같은 충격파가 되면서 파괴 효과를 일으킨다. 폭발시에 형성되는 불덩어리 속에서 기체화되어 있던 방사성 물질은 점차 응결되어, 폭발시에 공중으로 올라갔던 흙이나 먼지 등의 입자나 빗방울에 붙어 지상으로 낙하하여 지구를 오염시킨다. 핵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중성자와 γ 선은 상당한 거리까지 도달하여 인체에 방사선 효과를 미치게 한다.

이러한 핵무기의 파괴 위력은 실제 사용된 일본의 예를 통해서 더욱 실감할 수 있다.

핵 무기의 위력이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입증된 것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에 투하된 사건에서 나타났다. 이 때의 핵은 23만명의 생명을 앗아 갔고 수십 만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 23만명은 당시 히로시마 주민 42만명 가운데 38%인 16만명과 나가사키 주민 27만 중 27%인 7만명을 합한 숫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 무기가 지금은 메가톤 급으로 세계 도처에

8) Time (18 April 1983) 21., 하웃즈바르트, 77.에서 재인용.

산재에 있어 어느 때에 또 다시 비극이 재현될 지 모른다.

핵무기의 위력을 확증이나 하는 듯이 핵전쟁의 미래를 내다본 <핵전쟁의 효과(The Effects of Nuclear War, 1979)>는 우리에게 핵전쟁의 무시무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디트로이트나 레닌그라드와 같은 정도의 도시에 떨어진 1메가톤 급의 핵탄두는 2백만의 사상자와 1백만의 부상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군사적 목표와 산업 시설물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은 미국 인구의 70%와 소련 인구의 40%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재난은 열, 폭풍, 직접적인 방사능의 즉각적인 효과로 인해 당시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암에 의한 희생자가 증가하고, 유전적인 결과와 생태계의 파괴가 수 십년 동안 계속될 것이며, 그 결과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이다. 9)

5. 핵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반성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핵무기는 인류에게 큰 위기 의식을 조장하고, 언제 파멸을 불러올지 모르는 암초가 되었다. 이를 알고 있는 핵보유 강대국들은 최대한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반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나라들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여 군사적 위기의식에서 벗어나고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핵무기가 이렇게 자국의 불안 심리를 제거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합당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별히 기독교 윤리적 시각에서는 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먼저, 기독교는 현대 핵물리학이 발견한 핵분열과 핵융합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한다. 기독교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을 나타냄을 주장한다(창 1:1; 시 19:1; 롬 1:20). 프란시스 베이컨은 성경과 자연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과 하나님의 작품을 담은 책'이라고 묘사하였다. 10) 하나님이 주신 자연물의 지극히 작은 요소인 핵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의 오묘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핵이 분열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함을 드러

9) John R.W.Stott,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한화홍역(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112-113.

10) Oliver Barclay,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서울:MP, 1993), 151.

내는 피조물이 된다. 원자 분열을 최초로 실험한 러더포드(Rutherford)의 연구실 문 위에 “여호와와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라는 시111:2 말씀을 라틴어로 써 놓았다.¹¹⁾

비록 이 세계가 타락의 영향하에 있어도 여전히 적절한 연구의 대상이다. 칼빈은 자연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는 사람은 신의 작업들을 탐구 하면서 그 창조주를 잊어버리는 사람만큼 죄스럽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과학 연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삶의 행위에 이르게 한다고 보았다.¹²⁾ 그러므로, 인간은 핵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며 선용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과학은 하나님이 만물에 주신 상당한 능력을 발견하고 사용하게 하므로 매우 매력적이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과학을 우상화하고, 핵을 절대화 내지는 무기화하려 한다. 그러나, 올바른 태도는 이를 두려워하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창조질서 가운데 적절하고 훌륭한 위치에 배치시키는 것이다.¹³⁾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인류가 악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데에 있다. 인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개발시킬 책임을 가진 자로서, 핵에너지도 역시 잘 활용하여 인류의 복지와 자연의 보존에 유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실패한 것이다. 실제로, 핵에너지는 인류에게 이제까지 없던 큰 에너지원으로써 선용하면 매우 유익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석탄, 석유 등 공해를 유발하는, 고갈되기 쉬운 에너지보다 환경에도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¹⁴⁾ 그러나, 인류는 이 에너지원을 핵무기에 먼저 활용하였고, 유익보다 살상과 파괴(인류와 환경에 대해)를 저지르게 되었다. 안락함과 유익을 주며 감사의 제목이 될 핵을, 전쟁과 파괴의 무기로 활용하며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파멸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다음과 같이 핵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핵에너지는 현대 물리학의 발전으로 얻게 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둘째,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인류의 유익과 자연의 개발에 선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11) 앞의 책, 150.

12) R.Hooykaas, 근대과학의 출현과 종교, 손봉호, 김영식역, (서울:정음사,1989), 114.에서 재인용.

13) 올리버 바클레이, 153.

14) 창조 질서 보존과 반핵 운동에 대해서는 III.2.(4)를 보라.

셋째, 핵에너지를 악용하여 만든 핵무기는 최악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선물을 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핵무기로 자국의 안보와 국제 사회의 지위권 확보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도모 역시 최악된 시도이다.

넷째, 인류는 이 죄악을 회개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며, 차후 더 좋은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때에도 선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인류와 자연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

III. 한반도의 핵문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흥기로 둔갑된 가운데 한반도에도 핵무기가 배치되었었고, 이것을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과거에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했던 핵무기는, ‘한반도 내 천개의 도시를 히로시마보다 더 철저히 파괴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북한이 우려할 만큼 위협적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반도에 있어서 핵문제에 대한 실태와 심각성,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분명한 시각을 정립하여야 한다.

1. 한반도 핵무기의 연주소

(1) 남한의 핵무기

한국은 6.25전쟁 후 주한 미군 소유의 핵무기를 1958년부터 한반도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으로 공식적 확인이 곤란하다. 그러나, 미군은 한국 전쟁 이후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켰고,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시켰음은 명약관화하게 알 수 있다.¹⁵⁾

남한의 핵기술은 1959년 3월에 첫번째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걸음마를 시작하였다. 1978년에는 프랑스의 지원 하에 연간 10톤 정도를 생산하는 실험 공장 규모의 핵연료 제조시설을 완성하여 가동하게 되었다.

15)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해 온 핵무기 수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추측하여 왔다. 650여 개 또는 북한의 주장으로는 1,000개 이상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인정되는 한반도의 미군 핵무기 배치수는 약 15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하영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 질서, 206-209쪽을 참조하라.

이후 원자력 발전소 사업에 주력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실제적으로 남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언급할 것은 박 정희 대통령 재임 시기에 남한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남한은 군사적으로 북한에 뒤져 있었고, 닉슨 독트린에 의해 미군이 철수 하려는 안보상의 위기감을 느끼는 시기였다. 이에 박 대통령은 자주 국방 을 내세우며 국내외에 있던 과학자들을 불러들여 핵무기 개발을 독자적으 로 추진하였었다.

그러나, 국제 정세와 자국 이익을 고려한 미국의 방해와 압력으로 핵무 기 개발은 좌절되었고, 1975년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함으로써 핵무 기를 보유, 제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이후 남한은 주한 미군과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국가의 안보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가 1991 년 9월 27일 부시 미 대통령의 「해외 미군기지의 전술핵무기를 완전히 철 수한다」는 선언으로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도 철수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한반도의 핵문제가 다시 국제 문제 화되었다.

(2) 북한의 핵무기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인민군 내에 '핵무기 방위부문'을 설치 하고, 1955년 4월 핵물리학 연구를 시작하여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핵개 발을 추진하였다. 1965년 6월에 영변 원자력 연구소를 창설하고, 8월 구 소련으로부터 2-4천kw의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였다. 핵무기 개발은 197 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영변 원자력 연구소를 확장하여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제2기 원자로를 건설하였으며, 80년대 후반에는 자체 설계 한 원자로를 건설 운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제기구와 관련하여 북한은 1974년에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하 였고 1985년에는 NPT에 가입했으나, 체제유지와 국제적 영향력 행사를 목 적으로 꾸준히 핵을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4년 현재 북한 은 4개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고, 2개의 발전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핵 연료 재처리 시설 2개를 운영 또는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16) 영변 원자력 단지에 대규모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동시 설에서 핵재처리를 실시하는 것 등을 보아 북한은 1990년대 초에 이르러 핵원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원료 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16) 통일연수원, 통일문답, 48.

판단된다. 17)

영변에 건설 되어있는 2기의 핵원자로의 상태로 보아 북한은 거의 핵을 보유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미 CIA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16.8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여 핵폭탄을 2.4개 정도 제조할 능력이 있다고 평 가되고 있다. 18) 또한, 얼마전 미국의 레스 에스핀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한 개의 핵폭탄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하였고, 더 나아가 페 리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개발 계속 추진한다면 연간 12대의 원폭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 같이 외국 군 대에 의한 핵무기 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핵 협상의 현재

남북한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이래 본격적인 남북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왔으나, 결실이 없이 끝나는 ‘소득없는 줄다리기’ 협상을 지속해 왔다. 남북대화 과정 속에서 군축과 평화 협정에 관한 토 론이 진행되는 중에 특별히 핵에 대한 언급은 1977년 1월 25일 북한이 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는 중 제기된 것이 처음인 듯하다. 20) 이때 북한은 긴장 상태의 완화와 핵전쟁의 원인 제거를 주장했고, 이후 78년 2월과 8월 북한 외교부와 김 일성의 5대 강 령 발표에서 남한 주둔 미군과 더불어 핵무기의 조기 완전 철거를 주장하 였다. 이는 미군의 전술 핵무기 배치에 따라 북한이 위협을 느끼므로 행 해진 일방적인 요구였다.

그러나, 1986년 9월 9일에는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이 평양에서 열렸다. 이는 남북한만의 대화 정도가 아니라 ‘비핵-평 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로서, 한반도의 비핵과 평화를 위한 7개항의 「평 양선언」이 채택되었다. 선언문의 제1항에는 “조선반도에서 핵무기의 개발 과 시험, 생산과 저장, 보유와 전개, 전파와 사용 일체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21) 이는 선언 자체로도 한반도핵무기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이였다.

17) 국방부편, 국방백서:1993-1994(서울:1993.10), 56., 통일연수원, 북한이해, 281.에서 재인용.

18) 통일연수원, 통일문답, 48.

19) 국민일보, 1994.4.11.

20) 박완신, 통일의 길목(서울:엠마오,1989), 234. 이 책에는 부록으로 남북통일관계 주요일지(226-258쪽)를 기재하고 있다.

21) 앞의 책, 248.

그러나, 이 선언은 남북한 사이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미군과 핵무기의 단계적 철거 요구(87년 7월과 88년 7월)'만 되풀이 되었다.

본격적인 남북한간의 핵무기 협상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채택, 가서명 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이 선언은 한반도의 핵무기가 남한 주둔 미군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핵 협상이 구체화된 것이다. 공동 선언의 주요 내용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금한다는 비핵 8원칙과 핵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고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보유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²²⁾

91년 당시에는 연례 한미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군사 행동과 선제 공습 공격도 불사한다는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²³⁾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채택된 「비핵화 선언」은 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이를 발효시키고, 3월 14일 제7차에서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본격적인 핵 협상에 마주 앉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13차례의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에도 불구하고, 사찰 규정에 대한 불일치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자주적 해결의 좋은 기회가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북한은 국제적으로 1992년 4월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한 후 1993년 2월까지 6차례의 임시사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핵연료를 3회 이상 재처리한 사실이 밝혀져 국제적으로 특별 사찰이 요구되면서 핵무기 개발 의혹이 계속되자 1993년 3월 12일 NPT탈퇴를 선언하였다. 이에 5월 12일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6월에 열린 북-미 제1단계 회담 이후 NPT탈퇴를 유보하고 대미 협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불사용, 한반도의 평화 통일 지지, 북한의 주권 인정 등의 성과를 얻어 내었다.

근간의 보도에 의하면 북-미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으며, 평화협정체결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협상 결과가 얼마나 성실히 준행될 지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22) 통일문제이해(서울:통일연수원, 1993), 376.
23) 이석열 "북핵-미국의 차별정책", 신문연구(관훈클럽, 57호, 1994. 여름) 85-86.

이번 협상으로 과연 '남-북, 북-미 협상 결렬, 한반도의 전쟁 위기, 협상 재개'의 순환이 끝나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의 보장이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2. 한반도 핵무기의 문제점과 대책

그러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핵무기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보자. 한반도의 핵문제는 그 특수성 상 한민족 전체의 사활이 달려있고, 지리적 요충지대에 속하며,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고, 기독교 윤리적으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1) 민족적 문제와 대처 방안

북한이 핵무장을 할 경우 가장 큰 위협 대상은 당사국인 남한이다. 역시 남한이 핵무장을 할 경우 북한이 가장 위협을 느낄 것이다. 한반도의 핵무장은 어느 편에서든 1차 대상국인 서로에게 위협과 불신의 요소가 된다. 그런데, 이 1차 대상국들이 한 민족이라는 사실이 문제의 심각성과 비참함을 더해 준다. 외세에 의해 형성된 세계에 단 하나 밖에 남지 않은 분단국이라는 것도 서러운데, 한 민족이 총칼을 겨누는 데서 더 나아가 핵무기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불신과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핵무장에 있어 가장 먼저 민족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핵무기가 한민족에게 주는 가장 큰 고통은 역시 '분단의 고착화'이다. 동서독이 통일된 역사를 지켜 본 우리가 그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훈을 얻어 한반도의 통일을 더 진전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목과 질시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 오히려 핵무기의 개발과 핵전쟁의 위기 소식이 계속되어 아픔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약 핵무기가 한반도의 양편을 서로 겨냥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해지고 분단은 고착화될 것이다.

민족적 문제점의 다른 하나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6.25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현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비극 차원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위기이다. 과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을 4-5회 계획했었다.²⁴⁾ 다시 한국전이 전개되어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이 감행된다면 남한에서 3천만명

24) 이영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서울:한길사, 1994.), 21-23.

이 죽고 1천만명이 방사능 환자들이 될 것이고, 한반도는 동물도 살 수 없는 핵 오염 지대가 될 것이다.²⁵⁾

민족 자주권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핵무기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경제적 이권을 위한 대상국이 될 위험성이 높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무기 산업을 위주로 하는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기회를 노리는 세계 최대의 군산 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이다. 남한은 군비증강을 위한 울곡사업에서 평균 매년 40-45억 달러를 투자하여 신규 무기 구입비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²⁶⁾ 근간에 미국은 한반도의 위기 의식을 과대 선전하면서 성능 결합이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남한에 투입하였다. 남북한의 핵무기의 군비증강은 경제력 낭비이며, 특히 남한은 민족 자주권이 유린되면서 미국 군산 복합체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한 민족적 위기는 반드시 쌍방이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민족의 땅덩어리를 외세의 손에서 주물럭거리게 맡겨서는 안된다. 만약 이대로 한반도의 핵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치 못한다면, 설사 현재의 협상이 잘 수행되어도 한반도 전체는 주변 강대국의 핵우산 아래서 영영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통일이 된다 해도 미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경제적 세력권에 편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조속히 주체적으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시키며,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균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²⁷⁾ 남한은 한미일 공조체제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며, 북한은 주체사상을 앞세워 타협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남북의 대단결에 의한 자주 통일과 자주 민족국가의 수립이 한반도 핵문제와 민족적 비극의 진정한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통일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한다. 남북한 군사기지의 동시 사찰, 쌍방을 향한 각종 전쟁 훈련의 조정 등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핵과 경험을 연계하던 기존 정책을 탈피하여 과감하게 경제 협력 재개 및 확대를 실시하며,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교류와 이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5) 노정선, "핵주권과 민족 주체성", 기독교 사상(426호, 1994.6.), 27-28.

26) 이영희, 69. 이러한 비용은 북한의 총군사비 (22억 추산)의 거의 2배에 해당하며 이중 대부분은 미국으로 투자된다.

27) 김태우, "2000년대 통일정책", 기독교 사상(제426호, 1994.6.), 46.

(2) 지리적 문제와 대처 방안

핵무기가 현대 세계에 미치는 파급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한반도의 핵무기는 지리적인 여건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현대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 수위가 높은 지역이 중동과 한반도인 만큼 한반도의 핵무장은 좌시될 수 없는 지리적 중대성을 지니고 있다. 완전한 해빙 무드의 국제 환경에 있어 한반도의 핵문제는 단번에 냉전적 안보 환경으로 회귀시켰다. 한반도는 남북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4대 열강인 미국, 러시아 연방, 중국, 일본 등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지역이다.

먼저, 한반도의 핵무기는 일본에게 큰 변수로 작용한다. 한반도의 핵무장에 대해 일본도 자구책으로 핵무장을 들고 나올 것이고, 충분한 능력을 가진 일본을 핵 강대국으로 부상시켜 옛날의 군국주의적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현재 일본은 플루토늄을 4.5-26톤을 보유하고 있어 적어도 900-5,200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고, 향후 20년 동안 100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²⁸⁾

한편, 러시아나 중국은 한반도의 핵무기가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조에 결정적인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한반도의 핵무기를 반대한다. 미국도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미국은 이제까지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많은 댓가를 지불해 왔다. 한편으로는 NPT체제를 유지하여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장 저지로 세계에 대한 경찰국가로서의 우위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한반도의 핵은 긴장감이 감도는 지역에 불을 당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핵무기는 러시아나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로 향하는 핵폭탄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반면, 미국도 1991년 한반도의 핵무기 배치를 중단하고 폐기시킨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다시 핵무기를 남한 전역에 배치시킬 것이다. 이는 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의 한반도 위기의 순간 때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입시킨 것으로 알 수 있다. 결국 한반도의 핵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보유를 하면 국제 요충지라는 지리적 요건상 미, 러, 중, 일의 한반도 4강이 한반도에 대한 핵무기 배치 내지는 겨냥을 확대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핵문제에 대한 지리적 문제를 두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

28) 이석열, 83., 노정선, "김일성시대 이후 북한 핵문제와 통일운동의 길", 기독교 사상(430호, 1994.10), 160.

가?

일단, 한반도의 핵무기는 미국과 소련이 태평양 지역에 배치시키고 있는 5,000개 이상의 핵무기의 작은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²⁹⁾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가 국제 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한반도의 핵문제는 민족적 대안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일차적으로 민족적 문제의 해결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주변 열강의 외교적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관계 개선, 특히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 개선이다. 현재 협상의 진전으로 북한의 지리적 외출구를 확대하여 개방을 촉진시키고, 주변 열강들의 공조로 원활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국제적 문제와 대처 방안

한반도의 핵무기가 갖는 문제점은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별히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UN, IAEA 등의 국제 기구들이 활발하게 제재의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물론 이들의 인종 차별적 핵정책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예를 들면, 미, 러, 영, 불, 중 등의 강대국이 핵무기를 보유, 제조하는 것이나, 일본의 플루토늄 축적, 인도, 이스라엘 등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사찰이나 제재의 움직임이 없다. 유독 북한의 핵문제만은 국제 여론이 따갑게 공격한다. 이러한 편파적 사찰은 마땅히 시정되어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부터 IAEA, NPT 등의 협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국제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성과 불신을 들 수 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이라크, 쿠바 등과 함께 요주의 국가가 되었다. 다음으로는 국제 여론을 조정해가며 국제 경찰국 노릇을 하려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비록 편파적이지만 군사적 중요지대인 한반도에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아무튼 한반도의 핵무기는 지리적, 국제 역학적 관계 속에서 다른 어느 나라의 핵보유 보다 세계 평화에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

우리는 민족의 국제적 지위나 발언권 등의 힘의 차원에서 한반도의 핵무기를 접근해서는 안된다. 국제 평화의 지향과 세계적인 화해 분위기의

29) 하영선, 222쪽.

유지를 위해서 한반도의 핵무기가 없어야 하고, 반면 국제 사회에서 강대국들 역시 동등한 핵사찰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차별적 불공정 사찰과 제재가 계속된다면 IAEA나 NPT 등 국제기구는 핵무기를 소유한 강대국들의 기득권 확보와 자기 방어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러한 핵무기를 소유한 강대국들의 횡포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국제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기존 국제 기구에서 약소국들의 핵 종속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족적 의사 수렴과 결정이 요청된다. 또한, 노정선 교수가 제시하듯이 약소국들의 민족 주체성을 보장시켜 주고 핵 종속 현상을 방지하며, 강대국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핵기구의 조직도 고려할 만하다.³⁰⁾ 그러나, 무엇보다도 핵무기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국제 사회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통념이 철저히 깨뜨려져야 한다. 핵무기는 국제 사회에서 어떤 수단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반면, 북한은 핵개발로 통해 국제적인 고립의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북한이 사용한 핵카드를 미국도, 국제기구도 상상치 못한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하였다.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미국과 마주 앉아 핵카드를 국가 체면을 살리면서 북한의 주권 인정,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한반도의 평화 통일 지지, 경수로 지원, 북-미, 북-일 관계 개선, 경협 등 실로 많은 소득을 올렸다. 이제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서며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이제 북한은 더 욕심을 부리거나 약속을 불이행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수법에서 벗어나 국제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더이상 핵카드를 수단으로 삼아 국익을 챙기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4) 기독교 윤리적 문제와 대처 방안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한 윤리적 조명을 해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고백하기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특별한 인간은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다. 더구나 한반도는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며 단일 민족으로 존속되었고, 근래에 들어와서 세계를 향한 선교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비록 분단된 두 머리의 국가이지만 결코 두 몸뚱아리일 수 없는 민족이다. 한반도의 핵무기는 결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을 수 없으며,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어그러지는 길이다.

30) 노정선, "핵주권", 31.

핵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 세계의 오묘함을 오용하는 창조 질서의 왜곡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모든 자연이 인간에게 봉사하고, 인간은 만물(미생물과 핵물리학의 분야에까지도)을 다스리고 선용하는 것이다. 만약 유전공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핵물리학이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면 이는 분명히 윤리적으로 악하다. 핵무기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단번에 깨뜨리고, 인류를 파멸케 하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핵무기는 가치 중립적이지도, 사용치 않을 잠재적 위협 수단도 아니다. 그러므로, 핵무기를 개발, 보유,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악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왜곡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먼저, 핵을 무기화 하는 모든 시도(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는 군사 행위까지도)는 지양, 근절되어야 한다. 반면, 핵을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탐구해 나가는 시도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많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반핵운동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핵의 사용 목적이 분명히 선하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은 무시될 수는 없어도 인정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창조 질서 보존은 반핵무기 운동과는 비례하나, 반핵운동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타락 이후 파괴된 창조 질서는 가시와 영경귀를 내며 인간이 땅을 경작하는 수고를 해야 소출을 얻을 수 있듯이, 어떤 인간의 활동에도 부작용은 발생하며 이를 줄이는 수고를 통하여 비로소 창조 질서로 인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³¹⁾

그러므로, 핵을 이용한 무기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에너지를 개발하며 그 부작용을 감소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와 환경 오염에 대한 연구를 힘써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 때문에 건설 계획 취소 및 폐기하는 추세이나 파탄한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 미국이 핵전쟁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향후 10년간의 비용 3천억 달러³²⁾를 핵에너지의 안전과 오염 제거에 사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31) 어떤 에너지 개발도 공해 유발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다만 인간이 이를 얼마나 수고하여 지혜롭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간은 자연을 개발함과 동시에 보존할 책임이 있는 존재이다.

32) 박순경, "북-미 핵공방과 한반도 위기를 넘어서는 통일의 전망", 기독교 사상(429호, 1994.9), 197.

한편, 핵보유국의 비윤리적인 핵실험과 플루토늄을 암거래하는 반인도적 행위는 즉각 제재되어야 한다. 국제 기구는 특별히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핵이 비윤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윌리엄 에너지 장관은 미국이 과거 45년 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800명에게 핵물질 생체 실험을 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비키니 군도에 인근 주민을 대피시키지도 않고 수소폭탄을 투하하고, 방사능 오염의 영향을 실험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³³⁾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실험용 생명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특히 강대국에 의해 한반도가 핵실험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³⁴⁾ 얼마전 북에 대한 선제 공격을 주장하던 미국의 논리대로 북한의 핵시설이 파괴되고, 전면전으로 북한이 남한의 원전을 폭파한다면 그야말로 한반도는 방사능에 오염된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핵을 무기화 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여기에는 핵시설 파괴도 해당되어야 한다.

인간은 고귀하게 창조되었고,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잘 계발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고, 이를 그리스도인들이 안내할 의무가 있다. 핵은 가치 중립적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파괴하는 악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름다운 한반도를 핵무기의 마수에서 구원하며 지켜야 할 책임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³⁵⁾(롬12:2)

IV. 핵전쟁에 대한 고찰

핵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실천적 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는 잠시 전쟁에 대한 제 이론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역사상 끝없이 전개되었던 전쟁을 기독교인들은 어떤 시각에서 보아왔는지 살핌으로써 우리의 논의를 더욱 심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일반적인 전쟁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을 살펴보고, 그 기반 위에서 현대 핵전쟁에 대한 여러 시각들을 검토해 보겠다.

33) 노정선, "김일성시대", 156.

34) 위의 글, 157., 이영희, 21-23.

35)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방안은 제V장 2.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1. 전쟁에 대한 전통적 이론 고찰

(1) 성전론 : 십자군전(The Holy War:The Crusade Tradition)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대적들과 싸우는 전쟁을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사이의 갈등인 성전(聖戰)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많이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용사시니...”³⁶⁾라고 노래하였고, 드보라의 노래는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들음 같게 하시옵소서”³⁷⁾라고 외친다. 특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략으로 하나님은 “...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³⁸⁾라고 명령하신다. 구약에서 나타난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지시와 통제하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여호와의 전쟁’이다.³⁹⁾

여호와의 전쟁은 일반적인 선과 악의 갈등에 대한 신적 권위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죄악과의 투쟁이다. 구약의 성전 개념은 단지 세속적인 전쟁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영적인 전쟁 원리이다. 가나안 거민의 진멸은 관영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창15:13-16).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종종 오용되어 왔고, 현대에도 전쟁의 정당화를 위한 근거로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전론과 ‘여호와의 전쟁’은 구분되어야 한다.

중세시대 교황 우르반 2세(Urban II)는 1095년 사악하고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회교도들에게서 성지를 해방시킬 것을 명령하고 십자군을 파병했다. 또한, 종교개혁 이후 계속된 종교 전쟁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되었다. 현대에 들어서 목적을 절대화하며 도덕적인 역제가 결여된 십자군전과 같은 전면전의 개념이 출현하였다. 특별히 멕시코 군사 개입을 발표한 미 월슨 대통령의 담화문은 많은 성경 구절로 채워져 있었고, 91년 부시 대통령의 걸프전 선포 기자 회견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끝맺었다.⁴⁰⁾ 며칠 후인 1월 29일에 부시 대통령은 연두 교서에서

36) 출애굽기 15:3.

37) 사사기 5:31.

38) 신명기 7:1-2.

39) Joseph L.Allen,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흥규역(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3.), 209.

걸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미국은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에 따른 부담과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이번 전쟁은 오직 정의와 자유, 도덕 등 인류가 추구하는 불멸하고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정의로고 도덕적인 전쟁이며...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말 것입니다.”⁴¹⁾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전론적 태도에 대해 바른 시각을 정립하여야 한다. 과연 하나님은 성전 개념을 인간 자신이 일반 정치 사회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로 주신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만 한다. 전쟁 쌍방은 자신을 선으로, 적을 악으로 스스로 규정하고 싸운다. 이란인들은 미국을 ‘거대한 사탄’으로 보고 싸웠으며, 이라크는 악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싸웠고, 서구 지도자들은 사담 후세인을 ‘새로운 히틀러’로 여기고 싸웠다.⁴²⁾ 성전론적 사고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목표와 수단을 추구하는 전면전의 양상을 지닌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성전론은 몇가지 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⁴³⁾

첫째, 성전론은 부적절한 하나님 이해를 내포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적은 돌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 편을 위해서만 섭리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성전은 ‘여호와의 전쟁’으로서 거룩이라는 신적 본질과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간과하는 것이다. ⁴⁴⁾ 성전론적 하나님 이해는 온 4:10-11, 마 5:44-45, 롬12:17-21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심각하게 상충된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이시다(출20:6). 그러나, 죄악에 대해서는 질투하시며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출20:5).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조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가의 전쟁(Politiker Krieg)’은 양자에 심각한 충돌을 야기한다.

둘째, 성전론은 구속사적 의미를 간과한 자의적 성경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 ‘여호와의 전쟁’은 철저히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를 반영(R.Semend)하고 있다. 여호와의 전쟁은 단지 출애굽 사건 자체에만 역사적 근거를 두는 것(M. Line)이 아니라, 족장들과 맺은 언약의 성취가 출

40) 이문식, “성전에 관한 신학적 고찰”, 복음과 상황(제2호, 1991.3-4.), 95.

41) 1991년 1월 29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행한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교서, 위의 글, 95.에서 재인용.

42) 조셉 알렌, 16.

43) 성전론에 대한 비판은 조셉 알렌, 24-29.와 이문식, 95-100.을 참고하라.

44) 이문식, 96. 이 글에는 폰 라드(Von Rad)의 <고대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폰 라드는 성전을 하나의 독특한 전쟁 제의 양식이라고 보았다.

에 굽이고(출 2:25; 3:12; 5:1; 7:15), 땅에 대한 약속 성취의 보증으로서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싸우신 것이다(출 15:3; 18:13-16). 그러나, 구속사적 의미를 간과한 일반적인 성전론은 오히려 전쟁을 선과 악 사이의 갈등의 문제로 단순화 시킨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아전인수격 독선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삼상 4:1-11은 '여호와와의 전쟁'에 대한 죄된 적용과 오용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2) 정당한 전쟁론 (The Just War Tradition)

정당한 전쟁론은 롬13장과 벰전 2:13-17을 근거로 해서 정부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종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권세는 타락한 상황을 바로 잡도록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수여하신 고유한 권한이라고 해석한다. 정부의 기능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제지하고 응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사법적 기능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전론자들은 정부가 힘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약을 지침으로 삼는다.

정당한 전쟁에 대한 기독교적 이론의 첫 제시자는 4-5세기의 암브로스 와 어거스틴이었고, 중세에 들어와 그라시안과 아퀴나스 등이 '전쟁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jus ad bellum)'와 '전쟁 중 정당화될 수 있는 수단(jus in bello)'을 위한 규범을 더욱 발전시켰다. 정전론적 사고의 기본 신념은 첫째, 창조주와 만물의 통치자인 하나님은 만물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 둘째,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간의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 셋째,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대한 기독교적 경의는 가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⁵⁾

그러나, 정전론은 어떤 규범을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만 온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규범에는 두가지가 있다. 먼저는 '전쟁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에 관한 규범(jus ad bellum)'이다. 첫째, 전쟁의 의도가 선하며, 그 전쟁의 목표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그 전쟁의 동기가 정의로와야 한다. 즉, 침략에 대한 방어전이어야 한다. 셋째, 그 전쟁의 수단이 제한되어야만 한다. 넷째, 그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있어야 한다.

45) 조셉 알렌, 64-69.

다섯째,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여섯째, 정당한 절차를 걸쳐 설립된 정부만이 전쟁을 할 수 있다.⁴⁶⁾

정전론의 또 다른 규범은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 수단에 대한 규범(jus in bello)'으로서, 이는 식별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이다. 첫째, 식별(discrimination)의 원칙은 전쟁 중에 비전투원(noncombatants)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direct attack)과 고의적인 공격(intentional attack)을 금하는 규범이다. 둘째로 형평성(proportionality)의 원칙은 사용 가능한 무력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을 요구하는 힘의 경제 전략적 원칙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정당화될 수 있는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준만큼의 힘을 사용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최저의 파괴를 바라게 한다.

전쟁에 대한 정전론의 사고는 현대 세계에서 성전론과는 달리 전쟁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 성전론은 전쟁을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해도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전쟁을 판단할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전론은 이러한 왜곡된 전쟁에 대한 판단력을 제공해 주는 유익을 준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당한 전쟁론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국제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갈수록 의문시 되어져 가고 있다. 정전론이 국제 정치상의 갈등을 인정하고 불의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이는 논리적인 판단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난점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이 규범은 심각한 도덕적 자기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모든 점에서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검토 기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⁴⁷⁾ 또한, 현대와 같은 핵시대에서 국익을 앞세우는 각 나라가 얼마나 정당한 이유와, 식별과 형평의 정당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보다 본질적으로, 정전론자들의 '불의에 대해서는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기본 신념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이 하나님 신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충실하며 모든 이웃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가?"⁴⁸⁾

(3) 평화론 (The Pacifist Tradition)

평화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이나 폭력에 가담할 수 없다는 입장

46) Paul Marshall, 기독교 세계관과 정치, 한화통역(서울:IVP,1993), 194-195.

47) 정전론적 사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셉 알렌, 93-100.을 참고하라.

48) 위의 책, 100.

을 취한다. 인간의 피를 흘리는 어떤 것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것은 비기독교적이며 그래서 비도덕적이며 항상 그르다는 것이다. 49)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의 핵심은 산상수훈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⁵⁰⁾,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⁵¹⁾,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⁵²⁾ 등에 근거하여 이들은 전쟁 자체를 그리스도 교훈에 어긋난 비성경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평화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인용하여 무저항과 비폭력을 주장한다.⁵³⁾

이들은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와의 전쟁’에 대하여 완성될 계시 과정의 한 부분으로 해석한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요 완성이며, 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점진적으로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 주신 것이 이전 시대에 진행된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롬13장 같은 본문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속의 새로운 질서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반응하며, 단지 국가는 죄를 억제하는 하나님의 보존 은혜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⁴⁾

평화론자들은 콘스탄틴 회의가 있기까지의 2세기 동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군인으로 복무하기를 거절한 것을 역사적 실례로 든다. 기독교 역사상 16세기의 재세례파와 오늘날의 퀘이커, 메노나이트, 형제단 등이 이러한 평화론을 지지한다. 이들은 전쟁 자체를 비성경적, 비윤리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나, 평화론자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비폭력을 주장하는 데에도 두가지 유형이 있다.⁵⁵⁾ 첫째는 실용주의적(pragmatic) 이론이고, 둘째는 증언적(witnessing) 이론이다.

전자는 비폭력적 방법이 전쟁에 비해 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렉(R. B. Gregg)은 비폭력을 “전쟁을 위한 효과적인 대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⁵⁶⁾ 비폭력의 위력에 대한 좋은 예가 인도의 간디(Mohandas Gandhi)

49) J.W.Walters ed., War No More, 12.

50) 마태복음 5:5.

51) 마태복음 5:39.

52) 마태복음 5:44.

53) John J.Davis, Evangelical Ethics(Phillipsburg :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mpany) 230-234.

54) 폴 마샬, 191-192.

55) 조셉 알렌, 41-46.

56) R.B.Gregg, The Power of Nonviolence, 개정판 (New York : Schocken Books, 1966),

와 미국의 킹(M.L.King, Jr.) 목사가 펼친 비폭력 운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적 견해가 여지없이 무너진 역사적 실례도 많다. 한 예가 제2차 세계대전 초 바르샤바에서 비폭력 저항을 펼치고 있던 유대인들을 히틀러 군대는 무참히 짓밟은 것에서 볼 수 있다. 니버(Reinhold Niebuhr)는 신약성서에 나타난 무저항의 계명은 비폭력적 저항(nonviolent resistance)과는 다르다고 비판한다.⁵⁷⁾

반면, 후자인 증언적 평화론은 요더(J. H. Yoder)나 하우워스(S. Hauer-was) 등에 의해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 이들은 비폭력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든 아니든 전쟁은 하나님 이해와 조화되지 않을 뿐더러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의 자질과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전쟁은 언제나 옳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평화론자들은 자신들이 자유를 잃고 속국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고 도덕적 고결함을 지키려고 한다.⁵⁸⁾

우리는 평화론에 대한 두 입장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먼저 실용주의적 평화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폭력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으나, 비폭력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인간 죄의 깊이를 인식하지 못한 낙관론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과 부합되지 않는다.

보다 더 신학적인 입장은 증언적 평화론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여자적으로 충실하며 제자도의 삶에 부합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비록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해 준다. 비록 극단적인 성경 적용에까지 나가는 경향이 있으나, 말씀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충실하려는 의도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실용적 입장과 증언적 입장이 킹목사에 의해 병행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모든 폭력을 거부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믿었고, 반면 비폭력적 저항이 불의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하였다.⁵⁹⁾

36-41., 조셉 알렌 42.에서 재인용.

57) Reinhold Niebuhr, "Why the Christian Church is Not Pacifist",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New York : Scribner's, 1940), 5-18., 조셉 알렌, 49-51.에서 재인용. 니버는 이 글에서 평화론이 인간의 타락성에 대한 낙관, 무저항과 비폭력의 동일시, 비폭력의 효율성에 대한 과장, 전제정치에 대한 선호 등의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58) 존 스토틀, 135.

59) 앞의 책, 4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 역사속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고찰하므로써 우리는 현대 핵전쟁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을 정립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 고찰을 통해 몇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먼저는 전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는 정전론이 제시하는 규범이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또한, 전쟁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평화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쟁의 소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 하여야 한다. 성전론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시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와의 전쟁' 개념에서 모든 전쟁이 여호와와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알게 해 준다.

증언적 평화론자인 요더(Yoder)는 평화론자가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좋은 정전론자가 되기를 바라고, 정전론자들은 자신의 동지를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대한 기독교적인 의무와 파괴적 갈등의 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증언적 평화론자라고 인정하고 있다.⁶⁰⁾ 어쩌면 전쟁에 관한 좀더 나은 시각이 이 두 시각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일 수도 있겠다. 평화론이 근본적인 지향점을 제공해 주고, 정전론이 이를 향한 한 방법을 제시하므로 이 둘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을 정립하는 데에 좋은 동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핵전쟁에 대한 현대의 제 이론 고찰

(1) 핵 억지론(Nuclear Deterrence)과 현대 핵전략

핵 억지론이란 핵공격을 받을 경우 적에 대하여 괴멸적인 타격을 주는 보복 공격 태세를 취하여 핵전쟁의 발생을 방지해보려는 이론이다.⁶¹⁾ 이는 충분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측도 미치지 않는 이상 먼저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있다. 이 억지를 성공시키려면 능력, 비용, 의도의 세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능력은 적에게 보복 조치를 취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납득시키는 것이고, 둘째, 비용은 적이 공격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셋째, 의도는 자국이 충분히 보복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

60) 조셉 알렌, 100-101.

61)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서울:한국 브리태니커, 1994.), 696.

다.⁶²⁾

그러나, 핵 억지 정책에 따라 핵을 소유하거나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점진적인 무장 해제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며, 결국은 제한적인 조건 아래서라도 핵 경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 보복의 이차적 공격이 정확한 무기였을 경우 선제 공격이 되는 결과도 될 수 있다. 더우기 핵 억지 정책 하에서 제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라도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 사용되어 치명적 결과를 입을 수 있고, 주변 나라에 그 피해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핵 억지의 과정이 핵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핵 억지론은 정당한 전쟁론의 jus in bello 규범(식별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다. 이러한 핵 억지론에 대해 폴 마샬은 어쩔 수 없는 조건적 수용을 주장하고, 폴 램지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천주교총에서도, 1982년 교황 요한 폴 2세(John Paul II)가 '억지론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는 아니지만 점진적인 감축을 향한 단계로서 핵 억지론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⁶³⁾ 그러나, 세계교회협의회(WCC) 등은 이 정책을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⁶⁴⁾

핵 억지론에 근거한 현대의 핵전략은 미국과 구소련의 경쟁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왔다. 이 다양한 핵전략을 크게 보복적인 핵전략, 방어적인 핵전략, 억제적 핵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① 보복적 핵전략 - 대량 보복 전략 (Massive Retaliation Strategy)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력의 진보에 의한 핵전력의 질적인 향상과 서로 핵우위를 점하려는 양적 정비에 따라 미-소 양국은 핵무기 개발 경쟁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한 핵전략이 아이젠하워 정부의 New Look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미국의 전략 공군을 중시하고, 침략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대량의 핵보복을 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1954년 1월 J. F. 덜레스 국무장관이 이를 대량 보복이라고 선언하므로써 '대량 보복 전략'이라고 불린다.⁶⁵⁾

62) 위의 책.

63) The Challenge of Peace : God's Promise and Our Response(by the United States Catholic Conference, 1983), 54.

64) 핵무기에 대한 세계교회의 여러 입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손규태의 글 "북한의 핵무장과 그리스도교회"(기독교 사상, 421호, 1994.1.), 17-23.을 참고하라.

대량 보복 전략은 미국의 핵우위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전략이다. 이 전략이 미국의 핵 억지 전략의 원형이라는 것을 볼 때 핵 억지론이 얼마나 비윤리적이며, 무차별적으로 시도되었는지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이 전략은 공산 제국의 어떤 침략에도 자국의 핵위력을 신뢰하고 충분히 적을 섬멸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전략이다. 이는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중시한 반인륜적, 비인도적인 전략이다. 만약 이 전략의 시행 중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보다 더한 전면 핵전쟁의 희생이 재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소련의 기술이 급부상하므로 곧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② 방어적 핵전략 - 유연 반응 전략 (Flexible Response Strategy)

1957년 소련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성공하고,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폭격기가 배치되자 소련에서도 핵에 의한 대량 보복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57년 10월에는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쏘아올려 핵 미사일 시대에 돌입하였다. 결국 대량 보복은 미국의 전유물이 될 수 없었고, 미국과 소련 양측이 핵공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공포의 균형'이 인식되었다. 이에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서 제한 핵전쟁에 대비하는 태세를 중시한 New Look 전략이 채택되었다.

60년대가 되자 핵무기는 파괴력이 과대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인식이 새롭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전면 핵전쟁이나 제한 핵전쟁, 통상무기에 의한 국지전 등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 반응 전략'이 채용되었다. 이 전략은 각종 위협에 유연히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전쟁을 억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억지 사상에 걸맞는 본격적인 방어 개념의 핵전략이 유연 반응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결국 기아와 가난 속에 죽어가는 인류를 무시하고 강대국의 무기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특별히 미국의 SDI(Strategic Defence Initiative)는 대표적인 방어전략으로 채택되었으나, 오히려 핵전쟁 유발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66)

65) 브리태니커, 697., 학원 524.

66) 닉슨 정부 말기에 슬레징거 국방장관은 좀 더 발전된 개념의 유연 반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충분(sufficiency)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소련의 도시, 공업 지대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군사목표에 대한 공격도 감행하여 2차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

③ 억제적 핵전략 - 상호 확증 파괴 전략 (Mutual Assured Destruction Strategy)과 상쇄 전략 (Countervailing Strategy)

이 전략(MAD)은 최근 미국의 행정책으로서 1974년 포드 대통령에 의해 채택되고, 1980년 카터 대통령에 의해 상쇄 전략으로 개정되었다. 이 전략의 근본 목적은 핵공격으로부터 상대국을 억제하는 것이다. MAD는 아무리 적의 조직적인 대규모 핵공격을 받더라도 살아남은 핵전력으로 상대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가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이 효과적이라면 그 나라는 상대국의 1차 공격에 살아남고 2차 공격으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 저장소가 숨겨져 있어야 하고 땅과 바다에 산재해 있어야 한다. 67)

그러나, 이 전략 역시 핵전쟁을 억지할 수 없다. 이 전략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억지를 위한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억지라는 미명하에 상대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는 비윤리적 전략이다. 이는 세련되고 논리적으로 가장된 옛 '대량 보복 전략'의 재현이다. 이것은 핵 강세를 통해 평화를 이루려는 전략으로 '점증하는 우세(Escalating Dominance)'라고 불리울만큼 무기 경쟁을 심화시키고 살아남을 핵 전력을 위해 전 세계 공간을 전쟁 구역화한다. 6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세계에서 핵 억지론을 근거로 제시하는 핵전략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비윤리적인지 알 수 있다. 핵 억지론은 핵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무기 경쟁을 가속시키고, 핵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분별과 차별화의 능력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전 세계와 우주 공간에 대한 전쟁 구역을 확대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의 핵전략들이 핵전쟁에서 인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오히려 이러한 전략들이 없어도 되는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으로 전략 핵무기에 대한 기존의 상한선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또 다른 방어 전략(SDI)으로 레이건에 의해 제창된 'Star Wars'는 핵무기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적의 미사일을 파괴하는 전략으로써, 이는 전쟁 공간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67) John J. Davis, 246.

68) 이 전략이 비도덕적임은 미 핵 잠수함 한 척이 소련의 160개 도시를 파괴할 능력 가졌다는 것과, C.F. Von Weiszacker의 평가에 의하면 현대의 국지전은 천만 명 정도의 인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우트브르트의 책 76쪽을 참고하라.

최근에는 소련의 공산 체제가 와해되고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되어 핵무기 경쟁의 시대에 새로운 전환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핵 억지 정책은 강대국들이 세계 질서를 자국의 핵우산 아래 모으려는 의도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계속 핵무기를 생산, 개발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행위이다. 핵 정책에 관한 한 강대국들의 국가 이익이나 공리주의적 도덕관을 넘어서야 한다.⁶⁹⁾ 현대는 핵 억지론의 재고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국제 사회는 이 좋은 기회를 통해 핵 억지 정책을 공포의 균형 전략에서 핵 사용 중지 정책으로, 더 나아가 핵 폐기의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강대국들의 핵무기의 확산 금지와 감축은 물론, 핵 실험과 제조 금지, 나아가서는 핵 폐기의 협상이 시도되어야 할 때이다.

(2) 핵 평화론 (Nuclear Pacifism)

핵 평화론은 전통적 평화론과는 달리, 모든 형태의 군사적 전쟁을 비도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한다. 핵 평화론은 전통적 재래식 군사력을 지지하고, 정의롭거나 전쟁의 어쩔 수 없는 불합리에 대해 인정한다. 그러나, 핵전쟁과 핵무기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1983년 밴쿠버에서 열린 제6차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정의와 평화에 대한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핵무기의 사용뿐만 아니라 생산과 보유는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윤리적, 신학적 기반 위에서 정죄되어야 한다는 선언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우리는 믿는다.⁷⁰⁾

핵 평화론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견해가 약간씩 상이하다. 핵 평화론자들 중 한 그룹은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좋으나 결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그룹은 일방적으로라도 핵무기 감축을 주장하며, 그 외에 여러 나라들 간에 군축을 제의하

69) 맹용길, "핵문제의 기독교 윤리학적 이해", 기독교 사상 (제330호, 1986.6.), 84.
70) Gathered for Life : Official Report, VI Assembly World Council of Churches, ed., D.Gill(Eerdman, WCC,1983), 137., In Defense of Creation : The Nuclear Crisis and a Just Peace, The United Methodist Council of Bishops(Nashville : Graded Press,1986), 41.에서 재인용

는 자들도 있다.⁷¹⁾ 이렇게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핵 평화론이 전통적 평화론 위에 정립되어 있기 보다 정당한 전쟁론의 기반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견해에 따라 핵 평화론자들도 핵 억지론자와 유사한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핵 억지론은 경우에 따라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억지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핵 평화론은 견해에 따라 핵 보유로 통한 억지력은 인정해도 핵무기를 사용하고 핵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들 핵 평화론자들이 핵무기 사용을 반대하거나 군축을 주장하는 이유는 도덕적이면서 매우 실제적이다. 이를 다음 몇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⁷²⁾ 첫째, 핵무기는 그 파괴력에 있어서 전체 인류에게 유용치 못한 영향을 미친다. 핵무기는 대량 살상, 지구의 기온 급하강, 핵겨울(Nuclear Winter), 기아, 환경의 파괴, 후세대에 대한 위험성 등 그 영향이 피해국은 물론 자국에도 미쳐 승자가 없는 손실만의 전쟁을 만든다. 둘째, 무기 감축은 일방적일지라도 핵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전쟁의 경우에도 핵무기 감축은 더 큰 핵전쟁의 피해를 면하게 해 준다. 셋째, 핵무기의 소유는 실제적으로 자국에 이익이 못된다. 왜냐하면, 대상국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껴 자국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무기를 개발토록 부추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도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핵 평화론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핵 평화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몇가지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다. 핵 평화론은 소망없는 유토피아적 환상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첫째 반론은, 핵무기를 감축한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며 상대국이 속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냐는 신뢰의 문제이다. 둘째는, 무기 감축이 오히려 상대국의 위협을 증가시키고, 상대의 위협으로 탈취 당하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 셋째, 일방적인 핵무기 감축은 상대국의 핵무기 감축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지 않는다. 넷째, 핵무기 사용을 주장하는 자들은 컴퓨터와 레이더 등 과학의 첨단화로 분별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⁷³⁾

우리는 이러한 핵 평화론의 견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핵 억지론과 핵 평화론의 차이가 핵전쟁의

71) John S.Feinberg, Paul D.Feinberg, Ethics For A Brave New World (Wheaton: Crossway Books, 1993.), 369.
72) ibid., 370-372.
73) ibid., 372-373.

찬반 여부에 달려 있고, 핵 보유에 있어서 일부는 핵 억지론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견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본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핵에 관한 한 그 지향점을 '철저한 핵 평화론'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억지론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핵무기 감축, 더 나아가 핵무기 폐기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 평화론적 억지론'이 선택 사항으로써 고려될 수 있겠다.⁷⁴⁾ 그 실례로 현재 미국이 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소련에 우위를 점한 핵 정책을 펴 결국 구소련을 따돌린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⁷⁵⁾

V. 핵전쟁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접근과 한국교회의 대응

1. 전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접근

그리스도인은 현대의 핵전쟁과 핵 보유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하여야 한다. 위의 제 이론들을 통해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은 이들 중 어느 하나를 쉽게 지지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여러 학자들의 주장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으나 분명한 근거가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판단의 기준을 분명한 성경의 기반 위에 제시하고 있지 않다. 물론 현대 핵문제에 대해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경우에서나 인간의 진정한 표준으로서 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전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전쟁 자체에서 찾아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쟁으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전쟁은 그 기반이 인간의 이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는 핵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분명한 시각을 '언약과 평화의 관점'에서 정립해야 한다. 먼저, 핵전

74) 핵전쟁에 관한 한 우리는 '반핵무기'의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즉, 핵전쟁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보유 및 사용 등은 비윤리적이라는 '철저한 핵 평화론'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핵무기의 감축과 폐기를 위해서는 보유국들이 핵 억지론을 계속 두둔하며 전쟁 불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폐기를 위한 '핵 평화론적 억지론'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도덕적 수용 입장과 같이 핵 억지론을 수용할 수는 없다.

75)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및 개방은 경제적인 요인만 아니라 군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이기택의 <한반도 통일과 국제 정치>, 240-241.에 의하면, 현재 소련이 미국의 SDI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거의 5천억 불의 군사비와 4-5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쟁은 하나님이 혈기있는 모든 생물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하는 사악한 행위이다. 또한, 핵무기 보유는 평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상된 평화를 얻으려는 핵 이상화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핵전쟁을 반대하고, 핵무기 보유를 거부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화적 생존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1) 하나님의 보존 언약과 핵전쟁의 도전

먼저, 성경이 핵전쟁에 대해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어디이고, 핵전쟁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자. 핵전쟁은 창세기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존 언약과 배치된다. 핵전쟁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맺은 그의 언약과 축복에 비추어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님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조세계를 보존하기를 원하셨기에 이에 반하는 핵전쟁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⁷⁶⁾는 축복을 해 주신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청지기로 세우시며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고, 자신의 피조물을 타락 전의 인간을 통해 축복하셨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는 더이상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⁷⁷⁾ 홍수 심판 후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지만(창 9:1, cf 8:17), 타락함으로 바르게 활용할 수 없는 인간에게 더이상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허락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생물들에게 인간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 대신 두려움을 주시므로(창 9:2) 창조질서를 보존시키신다. 다른 한편, 하나님은 더이상 피조계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창조질서의 보존을 약속하신다(창 8:21-22).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창 8:21)에게 맡겨두시므로 그의 창조 질서가 영영 파괴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므로 피

76) 창세기 1:28.

77) 박사우엘, "창 9:1-17 주석"을 참고하라.

조 세계를 지키시겠다는 것이다. 즉, 만물이 타락한 인간의 손 안에서 주물럭거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9장을 통해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보존은 언약을 통해 확증된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자비의 손길로 피조세계에 대한 보존의 언약을 맺으셨다. 이는 비록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전체를 다시는 멸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 언약은 단지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인간(창 9:1-7)과 모든 혈육있는 생물(창 8:15-22)에게 하신 약속이다(창 9:10, 12, 15, 16, 17). 무지개가 있는 한, 사람을 포함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자연 조건을 안전하게 유지하겠다는 하나님의 보장이다.

그러나, 핵의 파괴력은 하나님의 보존 언약을 파괴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총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 능력과 흡사한 것을 가짐으로써 언제든지 그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에 갈음하여 깨뜨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섬찍지근한 그림 하나를 본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가 도저히 뜰 수 없는 핵겨울 속의 하늘이다.”⁷⁸⁾ 핵전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는 선언을 인간의 능력으로 파괴시키려는 비성경적, 반신론적 작태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보존 언약을 인간 스스로가 깨뜨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종류의 전쟁에도 반대해야 한다. 핵전쟁에 관한 한 성전론의 논리나 정당한 전쟁론의 원리를 핑계삼아 - 그 의도가 선하고, 방어전이고, 이길 승산이 있고, 최후의 수단이고, 정당한 정부에 의해서라도 - 정당화할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선을 하나님의 언약에 고정시키고, 화평케하는 자(peace-maker)로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평화의 주권자 하나님과 핵의 위상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보존 언약에 근거해 볼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핵전쟁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핵전쟁은 반대한다 할지라도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어떠한가? 현대의 많은 핵 억지론이 이야기하듯이 핵무기를 잘 보유하고 사용

78) Richard Bankham, “창세기 홍수와 핵전쟁”(복음과 상황, 1992. 3-4.), 106.

현대의 핵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하면 핵전쟁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핵전쟁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보유, 배치 및 사용을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상대국의 가상의 공격에 대비하여 국가를 방어하려는 것이 합리적인 목표가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⁷⁹⁾

현대 세계는 핵무기를 이상화⁸⁰⁾하여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얻으려 하고, 더 나아가 자국의 국제 사회에 대한 지위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일국의 절대적 안전에 대한 갈망을 무기를 통해 그 환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도하므로써 한 나라는 도덕적, 경제적으로 자체의 파국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⁸¹⁾ 인류는 핵 억지론의 거짓 약속을 신뢰해서는 안된다. 억지사상은 그 자체에 이미 모순을 안고 있다. 먼저는 핵무기의 증강으로 상대국에게 공포심을 크게 주면 줄수록 상대국의 핵무기 증강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핵무기 경쟁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다른 한편, 핵 억지론은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면서도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사용한다는 가정이 없이는 억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핵무기를 통한 안정은 개인과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면을 쓴 긴장’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화평뿐 아니라 국가의 안보, 세계의 평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한다(단 2:31-45; 4:17; 5:21).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의 산물일 수 없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이 평안은 세상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핵무기의 가장된 평화로도 모방할 수 없는 평화이다(요14:27).

성경은 평화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다루고 있다.⁸²⁾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בְּרִית 의 언약(사54:10; 겔 37:26)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평화의 세계를 소망하게 하신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로서 주어진다(사32:17). 하나님의 참 평화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79) 하웃즈바르트, 66.

80) 핵무기의 위상성에 대해서는 Dean C. Curry ed., Evangelicals and the Bishops' Pastoral Letter, (Michigan : Eerdmans, 1984), 53-55.와 Methodist, In Defense, 46-49., 그리고 하웃즈바르트의 책을 참고하라.

81) Richard Barnet, The Economy of Death(New York : Atheneum, 1969), 9., 하웃즈바르트, 78.에서 재인용.

82) 평화(שָׁלוֹם)에 관한 논의는 Catholic, The Challenge, 9-18.와 Methodist, In Creation, 23-30., 그리고 Curry, Evangelicals, 23-31.를 참고하라.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⁸³⁾는 예언자의 말처럼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이다. 또한 그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⁸⁴⁾ 먹는 완전한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 이는 신약에서 확증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될 것이다. “그는 우리의 평화”⁸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평화야말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류는 핵무기의 위상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핵무기는 인류에게 모든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후에는 인류가 핵무기의 사슬 속에 사로잡혀 핵무기 증강으로 파멸의 핵탑(核塔)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류는 핵무기를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도구로나 국제 사회의 지위권 확보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포기하여야 한다. 평화는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의의 결과이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라”⁸⁶⁾ 더 나아가 이 평화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다(사32:15-20).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와 정의의 우선순위를 뒤바뀌어서 안된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진정한 평화가 선물로 더해질 것이다(마6:33).

인간의 기술과 과학의 산물인 핵무기는 인간에게 가장된 평화, ‘긴장이라는 왜곡된 평화’를 제공한다. 이는 평화라는 가면을 쓴 위기일발의 긴장일 뿐이다. 세상은 핵무기를 보유하므로 안보를 구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거절의 일보를 내딛어야 한다. 핵 억지사상의 배후에는 인간이 핵무기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짓된 발상이 들어있다. 그러나, 억지력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계 7:1). 우리는 핵 우상 숭배를 통한 안전보장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우리의 최종 안전을 두어야 한다.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참된 평화를 구해야 한다.

2.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우리는 이제까지 핵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핵)전쟁에 대한 제 이론을 고찰해 보며, 기독교 윤리적 시각을 정립하여 보았다. 핵전쟁은 반기독교적이고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

83) 이사야 2:4.

84) 이사야 65:25.

85) 에베소서 2:14.

86) 이사야 32:17.

며, 핵무기의 폐기와 핵에너지의 안전한 평화적 사용만이 한반도에서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세계의 핵무기와 한반도의 당면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은 무엇인가?

첫째, 한국교회는 세계의 통치자이시며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여야 한다. 이것은 핵문제에 대해 반드시 견지해야 할 우리의 기초적 시각이다. 만약 이 기초가 무너지면 한반도는 핵무기를 신뢰하여 증강 배치하므로 안전을 추구할 것이고, 세계가 핵 전시장이 될 것이다. 어느 나라의 무기가 가장 위력있고, 어느 국가의 핵전략이 가장 효율적인지 서로 경쟁할 것이다. 핵확산의 금지, 핵무기 감축, 핵전쟁과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건설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핵문제는 일차적으로 심리적인 문제⁸⁷⁾이고, 더 나아가 ‘핵 우상이나, 하나님이나’ 하는 영적인 문제이다.

구약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특이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해변의 모래 같이 많은 대적이라도, 당시 최대의 무기인 강력한 철병거를 가진 적군이 쳐들어 온다고 해도 승리의 여부가 무기의 많고 적음, 강함과 약함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승리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패전하였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⁸⁸⁾ 이러한 예는 성경에 수없이 나타난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왕은 오직 주만 바라보았고(대하 20:12,20),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며(사 31:1),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렘 2:27), 핵의 거짓된 안보를 의지하고 그것을 받으면 멸망하고(사 31:2-3) 환란 날에 하나님의 도움심을 얻을 수 없다(렘 2:28).⁸⁹⁾

둘째, 한국교회는 평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평화를 위한 봉사자로서의 교육이 필요하다.⁹⁰⁾ 전쟁과 평화에 대한 바른 시각과 핵문제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그리스도인들이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핵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87) 브리태니커 사전(697쪽)은 “핵 억지론은 핵무기의 거대한 파괴력과 상상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어 공포심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상대의 행동을 구상 단계에서 멈추게 하는 심리적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88) 잠언 21:31.

89) 물론 이 본문들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한국교회 역시 영적 이스라엘로서 핵전쟁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것이다.

90) 평화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는 Catholic, The Challenge, 86-88.과 Methodist, In Defence, 86.을 참고하라.

시각을 확립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교회의 예언자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 이는 교회적으로 가르쳐져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화평케하는 자(peace-maker)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한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성경으로 핵문제를 포함한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를 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성경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세계관의 확립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전쟁에 관해서, 핵의 우상성에 관해서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통찰력으로 이 사회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핵문제에 대해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봉사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는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핵문제에 대한 바른 시각 정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교회는 조속히 핵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인 진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는 몇몇 전문적 기독교인과 단체에서 핵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논의해 왔을 뿐 분명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미, 세계교회협의회(WCC)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1966년, 1983년 등 여러 회의들을 통해 핵무기의 제조와 배치를 '인류에 대한 반역이요, 신학적, 윤리적으로 정죄받아야 할 것'으로 선언했다. 독일교회는 1958년 서독에 미국의 핵무기 배치가 결정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찬반 논쟁을 격렬히 하여 그들의 입장을 정리하려고 했다. 역시 세계개혁교회(장로교)연맹도 1982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교회의 평화 책임"이라는 공식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⁹¹⁾

이처럼, 한국교회도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 천명하여야 한다. 현 한국의 상황에서는 핵무기의 배치에 대해 찬반의 두 극단적인 입장이 매우 격렬하게 논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원리들을 고려하면서 분명하고 성경적인 바른 견해를 천명해야 한다. 최근 몇몇 기독교계단체에서 최근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였다.⁹²⁾

91) 손규태, 21.

92)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제4회 기독교자 도교회의'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통합)(합동), 한국기독교장로회, 재일대한기독교교회와 조선기독교도연맹이 참여하였다. " '94 한국 기독교인 통일 선언"은 기독교학문연구회, 기독교대

"우리는 한반도(조선반도)의 핵문제가 강자의 논리에 의하여 부당하게 알려지고 처리되는 대신에 인민족의 공존을 위하여 정당하고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모든 관계자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⁹³⁾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자조적이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또 우리에게만 그렇게 할 민족적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⁹⁴⁾

넷째, 한국교회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 비윤리적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핵무기에 대해 거센 반대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단지 북한의 핵개발만을 우려하지 말고 한국 안에 있는 미국 핵 무기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면 한반도 내에는 남북이 핵무기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북한의 핵 무기 포기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안보를 이유로 핵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독일교회처럼 반대해야 한다.⁹⁵⁾ 또한, 세계교회와 함께 핵무기의 감축과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교회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집권 정부의 대북 창구 일원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비주체적, 비전문적, 통일된 종합 대책이 없는, 신중하지 못한 현 정부⁹⁶⁾는 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체적이지 못한 태도는 비판되어야 한다. 교회는 정부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여기서 한국교회의 과감한 결단이란 일시적인 감쪽

학설립동역회 주최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라는 주제의 공동학술발표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핵문제를 통일의 연관성 상에서만 다루고 있고 핵문제에 대해 너무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어, 핵문제 전반에 관한 한국교회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93) 김소영, "기독교자 평화통일과 선교회의 보고", 기독교 사상(428호,1994.8.), 200.

94) " '94 한국 기독교인 통일 선언"(복음과 상황, 1994.3.), 104.

95) 손규태, 20.

96) <국제신문> 1994년 4월 8일, 금요일 칼럼의 주필인 김상훈씨는 '外交無策'이라는 제하에 현 정부의 대북 핵 외교에 대한 비판을 6가지로 논했다.

형의 행동이 아니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교회는 남북대화의 실현을 위해 북한교회와 협력해야 한다. 남북한 정부는 교회가 남북한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 남북교회 회담 속에서 한반도 핵에 대한 합의된 입장 천명과 함께, 한국교회가 북한의 경제 물자 지원을 북한교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산 가족 상봉도 남북교회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별히 남북교회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현재 핵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인 줄 알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평화 통일로 이사가 2:4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그림자적인 실현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져, 핵무기를 폐기하여 핵에너지로 사용하고, 핵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그치고 평화의 한반도가 도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핵무기에 대비한 한국교회의 핵무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 말은 핵은 핵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런 핵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핵무기와 같은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핵무기는 현재와 같은 기복적이며 세상과 타협한, 세상에 대해 무력한 모습으로는 불가능하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쇄신되어야 한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치와 기능을,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대사회적인 교회의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교인들에게 분명히 확립시켜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미 쇠퇴의 기로에 서 있다. 그 이유는 영적인 능력 상실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개교회만을 위한 교인 유치의 기업적 성장에서 눈을 돌려 현신자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불신자들에게 대한 선교와 대사회적 교회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다. 이것이 바로 시행되어 한국교회가 바로 설 때, 핵전쟁의 위협에 대한 기독교인의 단합된 올바른 결단과 행동이 이루어지며,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며, 장래의 통일을 교회가 안을 수 있는 핵무기보다 더한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핵 위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한국교회의 대책일 것이다.

VI. 결론

우리는 이제까지 현대 세계의 핵문제에 대한, 특별히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을 하였다. 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1. 핵무기는 핵물리학의 발전에 따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악의 수단으로 오용한 것이다. 이 핵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배치되어 인류를 위협하는데, 인류는 핵을 하나님의 선물로 선용하며, 평화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2. 한반도의 핵문제는 그 특수성상 민족적, 지리적, 국제적, 기독교 윤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핵문제가 최근 북미 협상으로 일차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 그러나, 한반도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자주적으로, 주변 열강과 협조하여, 국제적 핵문제의 해결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3. 전쟁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성전론, 정전론, 평화론으로 이들은 우리에게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당한 전쟁에 대한 바른 시각을 정립하며, 우리의 목표가 평화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 핵전략과 이론은 자기 모순을 안고 있으며, 바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4. 우리는 핵전쟁이 하나님의 보존언약에 배치됨을 깨닫고 결사 반대해야 하며, 평화의 주인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핵무기의 폐기하고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이루어가야 한다. 한반도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평화에 대한 바른 교육을 시키고,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의 핵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는 남북 통일의 길을 여는데 힘써야 하고, 한국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을 통해 핵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이로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류와 만물의 안녕과 보존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핵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오묘하시며 광대하심을 보여주는 핵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용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해 주신 자연의 비밀을 인간이 발견해 가면서 충만한 기쁨과 함께 그 분에 대한 경외심을 더 갖게 된다.

반면, 이 놀라운 창조 질서의 비밀을 찾아내어 그 힘을 무기화하여 전

인류를 공포의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핵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의 발로라 하겠다. 참된 기쁨을 맛보며 수고의 댓가를 누리야 할 인간이 이를 악용하므로 핵의 무시무시한 공포에 눌리게 되었으며, 이제는 핵무기의 늪에 빠져 그를 받들어 섬기는 위치에까지 전락하였다. 이는 죄로 인해 빚어지는 저주의 결과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반핵이 아니라, 반핵무기이며, 비핵무기이다. 핵무기 폐지에서 더 나아가 핵에너지의 본래 기능을 살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물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 선하게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위기에서 벗어나 제 궤도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오직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참 평화를 누릴 것이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와 함께 할 것이니라”⁹⁷⁾ **고려신학보**

97) 이사야 65:17-25.

참고문헌

- “ '94 한국 기독교인 통일 선언 ” 복음과 상황, 1994. 3.
- 공석하, 소설 이휘소, 서울 : 뿌리, 1994.
- 김덕중, “핵문제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94 해외동포초청세미나 자료집, 평화문제연구소, 1994.
- 김명혁, 통일과 선교, 서울:성광문화사, 1993.
- 김민웅,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기독교 사상 제421호, 1994. 1.
- 김소영, “기독교 평화통일 선교회의 보고”, 기독교 사상 제428호, 1994. 8.
- 김중석, 교회는 통일을 대비하라, 서울 : 반석문화사, 1993.
- 김태우, “2000년대 통일 정책”, 기독교 사상 제426호, 1994. 6.
- , 한국 핵은 왜 안되는가?, 서울 : 지식산업사, 1994.
- 노르만 가이슬러(Norman L. Geisler), 기독교 윤리학, 위거찬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노정선, “핵주권과 민족 주체성”, 기독교 사상 제426호, 1994. 6.
- 동아출판사, 세계대백과사전, 제30권, 서울:동아출판사, 1984.
- 덤브렐(W. J. Dumbrell), 언약과 창조, 최우성역, 서울:크리스찬서적, 1991.
- 리차드 보캄(Richard Bankham), “창세기 홍수와 핵전쟁”, 복음과 상황 제8호, 1992. 3-4.
- 맹용길, “핵문제의 기독교윤리학적 과제” 기독교사상 330호, 1986. 6.
- , 전쟁과 평화, 서울:콤란출판사, 1994.
- 박사무엘, “핵위기의 한반도 현실과 한국교회의 대책”, 1994.
- , “창 9:1-17 주석” 1993.
- 박순경, “북-미 핵공방과 한반도 위기를 넘어서는 통일의 전망”, 기독교 사상 제429호, 1994. 9.
- 박완신, 통일의 길목, 서울:엠마오, 1989.
- 박종화,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제426호, 1994. 6.
- 백종국, “북한 핵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기하는 것은”, 복음과 상황, 1994. 7.
-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서울:한국 브리태니커, 1994.
- 손규태, “북한의 핵무장과 그리스도교회”, 기독교사상제421호, 1994. 1.
- 올리버 바클레이(Oliver Barclay),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서울:IVP,

1993.
 윤덕민, “북핵 라결, 새로운 시작이다”, 신동아 제420호, 1994.9.
 윤병근, “핵사태에 있어서 평화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연구”, 감신대 학위논문, 1986.
 이기택, 한반도의 통일과 국제 정치, 서울:삼영, 1991.
 -----, “한반도의 평화와 군축”, 기독교사상 290호, 1982.8.
 이문식, “성전에 관한 신학적 고찰”, 복음과 상황 2호, 1991.3-4.
 이문영, “안보 정치와 평화 정치”, 기독교 사상 제421호, 1994.1.
 이석열, “북핵-미국의 차별정책”, 신문연구 제57호, 1994. 여름
 이영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서울:두레, 1994.
 이영희, 임재경편, 반핵 : 핵위기의 구조와 한반도, 서울 : 창작과 비평, 1988.
 조셉 알렌(Joseph L. Allen),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흥규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3.
 조재길,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서울:삼민사, 1994.
 존 스타트(John R.W. Stott),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통일연수원, 통일문답, 서울, 1994.
 -----, 북한이해, 서울, 1993.
 -----, 통일문제이해, 서울, 1993.
 폰 라드(Von Rad), “고대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 폰라드 논문집, 김정준 편역,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폴 마샬(Paul Marshall), 기독교 세계관과 정치, 한화통역, 서울:IVP, 1993.
 하영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서울:나남, 1991.
 하웃즈바르트(Bob Goudzwaard), 현대 우상 이데올로기, 김재영역, 서울:IVP, 1987.
 학원사, 세계대백과사전, 제31권, 서울:학원출판공사, 1993.
 허문영, “새로운 남북한 관계의 전망”, 기독교사상 제421호, 1994.1.
 호이카스(R. Hooykaas), 근대과학의 출현과 종교, 손봉호, 김영식역, 서울:정음사, 1989.
 Curry, Dean C. ed., Evangelicals and the Bishops' Pastoral Letter (Grand Rapids : Eerdmans), 1984.
 Clouse, Robert, ed., War : Four Christian Views (Downers Grove : IV

P), 1981.
 Davis, John Jefferson, Evangelical Ethics (Phillipsburg :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mpany),
 Feinberg, John S., Feinberg, Paul D., Ethics for a brave new world (Wheaton : Crossway Books), 1993.
 James V. Schall, S.J. ed., Out of Justice, Peace/Winning the Peace (San Francisco : Ignatius), 1984.
 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The Challenge of Peace : God's Promise and our Response, A Pastoral Letter on War and Peace, May 3, 1983
 The United Methodist Council of Bishops, In Defence of Creation : The Nuclear Crisis and a Just Peace (Nashville : Graded Press), 1986.
 Tillman, William M. Jr., ed., Understanding Christian Ethics (Nashville : Broadman), 1988.
 국민일보, 국제신문, 조선일보, 부산일보, 중앙일보,